

제36차 ATCM 법제도작업반 주요 논의결과

- 남극에서 형사관할권 이슈
 - 프랑스가 동 이슈 관련 ICG운영 결과 보고 이후 관련 정보 공유에 대한 협의가 이뤄짐
 - : 가상의 사건/사고, 범인의 선고에 대한 사례 수집 필요, but 개인 신상정보 공개나 미래를 대비한 가상사건 등이 DB로서 부적절성을 제기
 - 일부 당사국은 DB구축 없이 정보공개만 필요하다고 주장
 - 기존 ICG가 2개의 가상 사건과 2건의 진짜 사건을 놓고 협의 추진을 하려 했으나 2건의 진짜 사건에 대한 논의 진행에 대해 일부 당사국이 우려를 표해 2건의 가상 사건을 참고로 협의 진행
 - 프랑스: 남극조약지역에서 기지 대장, 선장, 기장이 남극에서 배나 항공기 상륙과 관련한 권한이나 법규위반 처벌에 대한 권한 등에서 국가별 차이점 등을 포함하여 남극에 참고할 만한 사례(형사)나 법규 등의 공개 정보로 한정
 - 프랑스 주도 ICG활동 결과를 통해 37차 ATCM에서 추가 보고 예정

제36차 ATCM 법제도작업반 주요 논의결과

- 제6부속서(Liability) 비준 현황(2013.5월 현재)
 - 핀란드, 이탈리아, 페루, 러시아, 스페인, 스웨덴, 폴란드, **뉴질랜드, 영국** 등 총 9개국 비준
 - 호주, 네덜란드 등도 국내 의회절차를 위한 법률적 조치 완료 보고(37차 ATCM에서 비준완료 보고 예정)
 - 독일, 우루과이 등도 국회절차 Start, 노르웨이도 2013.4.26 일자로 동 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한 국내 입법을 완료하였음을 보고(비준은 아직 안함)
 - 우리나라는 정부간 협의 진행 중임을 보고

제36차 ATCM 법제도작업반 주요 논의결과

- 생물자원탐사(Biological Prospecting)
 - 생물자원탐사의 정의가 정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조치를 취할 경우 기초 연구활동 저해할 수 있다는 한, 미, 일의 입장
 - 광범위한 정보공유를 희망하는 뉴질랜드, 프랑스, 벨기에, 남미 국가 등과의 입장 차
 - 문서 제출 벨기에 입장 고려하여 토론 끝에 Resolution 도출
: 당사국은 생물자원탐사에 대한 이해와 평가의 개선을 위해 가능한한 자국의 법적 레짐 하에서 수행되는 생물자원탐사에 대해 공개 보고할 것을 권고.
당사국 정부는 이와 관련한 정보 교환을 개선하는 방법 검토하고, 이 목적을 위해 EIES가 부합될 수 있는 지 고려

제36차 ATCM 법제도작업반 주요 논의결과

- 기타

- 체코의 당사국 가입 최종 승인, Decision에 따라 2014년 4월 1일부로 당사국 지위 갖게 됨(29개국으로 증가)
 - : 남극반도 James Ross Islands에서 2004년부터 연구 시작
 - 2006 2월 동 지역에 멘달(Mendal) 하계기지 완공 및 본격 연구 추진(매년 15명 하계연구대 파견)
 - : Brazil(2014), Bulgaria(2015), Chile(2016), China(2017), Czech(2018)
- 알버트(Albert) 모나코 왕자 VIP로 참석
 - : 기후변화 이슈, 남극해 수산자원 남획 및 생태계 보호, 지구에서 남극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의 이슈 제기